

지역특화형 공모사업 총력전

임실군, 7개 사업 선정 쾌거·현재 11개 사업 추진

임실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특화형' 공모 사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군은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전 직원이 적극 나서서 지역의 정책방향에 맞춰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응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임실군이 목표로 한 국가공모 사업 규모는 총 33개 사업에 총 485억 원 규모다. 이중 3월 현재까지 7개 사업이 확정됐으며, 이달에는 총 11개 사업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를 오가며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현재까지 선정이 확정된 사업은 임실 N+물전지 조성사업과 2018년 생태테마 관광지원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임실N치즈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역대표 예술제 지원사업,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1관1단사업,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등이다.

농업과 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4월에도 발자 물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비롯

한 농업분야에서 6개 사업과 임실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등 2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관촌면과 성수면 등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의 공모전도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이색적인 공모사업으로는 오수의견설화의 대표성을 가진 반려동물 메카로서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지원사업 유치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임실N치즈의 명성을 살리고, 전국적인 치즈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임실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만 118억원이며, 국도비 사업비로 50억원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해에도 군은 총 3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 25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규모가 큰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 많아져서 확보할 수 있는 총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

다.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임실군은 올해 국가예산 사업과 중앙 공모사업 총 55건에 총 사업비 4,450억원(국비 3,114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응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북도 및 중앙 부처, 국회 등을 방문,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임실군의 4천억 예산시대를 연 만큼, 올해에도 국가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5천억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기업 입주 잇따라 기업유치 '훈풍'

금산·케이제이 공장 착공

순창군에 기업 입주가 잇따르면서 기업유치에 훈풍이 불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최근 풍산면 죽전리 소재 풍산농공단지에 2개 기업이 입주를 위해 공식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풍산농공단지 분양률이 95%를 넘어지면서 사실상 100% 분양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번에 공장기공을 위해 착공에 들어간 기업은 (유)금산(대표 이용현)과 (유)케이제이(대표 고창영)으로 태양광 하부 구조물 제조업체다.

군산 소재 삼신종합건설(주)의 협력업체로서 납품처가 확보된 성장 유망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입주는 청정지역 순창을 홍보하는 장소 마케팅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 정책기조인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맞춰 향후 지역 태양광산업 견인에 호재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제조업 경기 불황에 위축된 농공단지 분양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순창군에 기업 입주가 잇따르면서 기업유치에 훈풍이 불고 있다.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현재 금산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를 위해 검토 중이며 장류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기업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개 기업이 입주

를 위한 착공에 들어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에는 풍산농공단지 외에도 5개 농공단지가 운영중이며 전체 분양률은 81%에 이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쌀빵 만들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5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4월 4일부터 농촌 어르신과 함께하는 쌀빵 만들기 교육을 주천면 하주마을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한다.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쌀 소비 촉진과 쌀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주마을 어르신과 남원시민 2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실습교육 내용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과 쌀을 이용한 메뉴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친숙한 찰쌀떡, 팔방부터 아지는 생소한 감빼누, 치아바타, 시폰케이크 등이다.

이번 교육 장소인 하주마을은

2016년 농촌건강 장수마을 시범 육성 마을로 교육과 함께 사후관리도 병행 예정이다.

또한 도시민·농민 화합의 장으로 삼아 지역공동체 문화형성과 농업농촌 살리기로 병행했다.

완성된 빵은 인근 경로당, 보육 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사랑 실천의 계기로도 삼을 계획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소비촉진이 확대되고 쌀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면서 단순한 교육을 벗어나 도·농의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고용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지원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타시·군 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업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민을 기준인원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100만원 한도로 6개월 이내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투자유치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호우'

임실군이 군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읍면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농촌의 문화적 갈증 해소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12개 읍·면에서 7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댄스, 노래교실, 웃음치료, 농악, 난타 등의 예능분야는 물론 스포츠마사지, 생활체조 등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들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 세심한 지도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배우며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하여 주민들로부터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수강생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군민들의 삶의 활력소로 거듭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견고추 품목 신청 접수

순창군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중 견고추 품목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또한 순창군의 경우 2018년도 상반기에 견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외래어종 수매사업

"배스·블루길 등 외래어종 kg당 5,000원에 수매합니다."

남원시는 5일 고유 토종생물을 보호하고 배스·블루길 등 외래어종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수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 가시막 등 제거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외래어종 산란기에 맞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한다.

외래어종 수매는 9월부터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매주 월요일(10시~12시) 옛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수매는 남원시민이 관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병동하지 않은 것은 kg 당 5,000원, 병동은 kg 당 3,000원을 차등 지급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순창군은 강풍, 태풍, 폭설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해 군민 안전 지키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산림과 연결된 주거지가 많은 순창군의 지형 특성상 주택연접지에 많은 나무가 생장해 피해목 제거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은 4월안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지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산림공원과 또는 읍·면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노약자, 장애우거주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단순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제거, 농경지 및 묘지 주변 수목, 도로주변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상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바버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니스	